

프로축구 FA컵 3연패·정규리그 6강 좌절

## 전남 “컵대회는 양보 못해”

8일 전남과 전북이 자존심을 건 한 판 대결을 벌인다.

전남 드래곤즈는 8일 삼성 하우젠컵 4강 플레이오프(PO)를 위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는다. 상대는 B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전북 현대. 정규리그 6강 PO 진출이 무산된 전남은 컵 대회 우승을 목표로 ‘전라도 더비’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 박항서 감독은 “FA컵 3연패도 실패했고 정규리그 6강도 어려운 상황이다. 컵 대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5일 울산과의 정규리그 21라운드에서 종료 직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등 전남은 2연승 행진을 하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지만 전북의 가파른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전남은 5연승으로 무서운 가을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전북은 최근 5연승을 하며 무려 13골을 쏟아냈다. 실점은 단 3점. 그래서

### 전북과 오늘 전주서 4강 PO

### 수원·포항 수원서 한판 승부

공격력으로 정규리그 6강 PO 진출과 더불어 컵 대회 우승까지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전남 박항서 감독이 경계대상 1호로 꼽은 보스니아 출신 용병 공격수 다이치

는 8경기를 치르면서 6골을 터트리고 있고,

국가대표팀에 첫 승선한 김형범의 프리킥

은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어 진검승부를 예

고하고 있다.

지난해 K-리그 2007 플레이오프(PO)에

서 맞붙었던 수원 삼성과 포항 스피더스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리그컵 4강

PO에서 재회를 한다.

시즌 초반 18경기 연속 무패(15승3무)로

승승장구하던 수원은 지난 7월 시즌 첫 패

배를 맛본 이후 주전 선수들의 출부상으로 지난달 정규리그에서 3연패의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수원은 부상 악재에도 선두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며 컵 대회 A조 1위를 달성, 4강 PO 직행권을 따냈다. 최근 3경기 연속 경기당 2점씩 뽑아내며 주축인 팀의 골 결정력도 살아났고 수비수 이정수와 조원희가 부상에서 돌아와 수비라인이 한층 안정됐다. 젊은 공격수 서동현과 신영록의 폐기도 뜻겁다.

이에 맞서는 포항은 정규리그 선두 성남

을 6강 PO에서 잡으면서 단기전 강자로서

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해 수원 경침의 ‘1등 공신’ 윤족 윙백

박원재는 지난 주말 광주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여전히 매서운 골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패(4승2무)의 상

승세까지 더한 포항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

이 충만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대한축구협회

### “악성 댓글 추방”

#### 홈피에 인신공격·욕설 난무

임에 담지 못할 옥설에 막무가내식 인신 공격, 근거 없는 허위 비방….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이 난무하자 7일부터 무기한으로 악성 댓글(악플) 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축구협회 계시판 관리에 마련된 ‘축구관 발언대’는 그동안 팬들이 국가대표팀, K-리그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일부 팬들이 이 발언대를 통해 최근 특정 선수와 심판, 감독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유포하거나 도를 넘어서 인신공격, 욕설, 상호 비방 등의 내용이 담긴 글도 끊임없이 게시하고 있다.

‘××심판은 축구협회 끄나풀’ ‘심판 불복 종한 축구인들, 내일 대검찰청 소환 확정’이란 악성 투머는 물론 ‘×××는 감독 은퇴해라’ ‘××× 죽이고 싶다’ ‘××× 입 닥쳐라’ 등 거친 표현도 적지 않다.

모 축구 감독이 부친상을 당했을 당시에 도 ‘성적이 그 모양이 이런 일을 겪는 거야’라는 입에 담지 못할 댓글도 있었고 ‘고졸 일반인이 박지성보다 월급 더 많이 버시는 법’, ‘축구 쇼단 단원모집’이란 제목의 허위 광고 글도 게시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악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침내 ‘악성 댓글 추방 캠페인’까지 벌이기로 했다.

2006년부터 실명인증제를 시작한 협회는 우선 제목이나 내용 중 옥설이 포함된 글을 걸러내는 ‘옥설 필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8일(수)

▲WNBA 챔피언결정전 4차전 <샌안토니오 : 디트로이트>(08 : 30·SBS스포츠)

▲메이저리그 NL디비전 시리즈 5차전 (09 : 00·Xports)

▲전국장애인체육대회(14 : 10·KBS1)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 : KB국민은행>(15 : 50·SBS스포츠)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 <롯데 : 삼성>(17 : 50·Xports·MBCESPN·KBSN SPORTS), (21 : 0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한신>(17 : 50·SBS스포츠)

▲AFC U16 챔피언십 축구 <시리아 : 대한민국>(22 : 50·Xports·SBS스포츠)

### ■ 해외파 축구스타들 귀국 ■

#### “10분이라도 때 경기 뛰었으면”

#### “대표팀 정신력 가장 필요할 때”

佛 AS 모나코 박주영



獨 도르트문트 이영표

“지금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에 합류한 이영표(31·도르트문트)가 자신을 비롯한 대표선수들의 강력한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이영표는 7일 낮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가진 인터뷰에서 “대표팀이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 이 시점에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정신력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영표는 또 “대표 선수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데 지금은 책임을 더 느낄 때다. 나를 비롯해 모든 선수가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경기가 잘 펼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표는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 축구팬들의 비판 및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나 코치, 팬들 모두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비난보다는 격려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최경주

### 배상문

## “2연패” VS “상금왕”

‘탱크의 2연패냐, 상금 굳히기냐’

9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에서 열릴 한국프로골프 제24회 신한동 해오픈에 참가 예정인 최경주가 7일 오전 연습 라운딩에 나서 호쾌한 티샷을 선보이고 있다.

내일 KPGA 신한동해오픈 개막

하게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신한은행

기독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낙ossa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 제24회 신한동해오픈은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최경주(38·나이키 골프)와 상금왕을 굳히려는 토종 장타왕 배상문(22·캘러웨이)의 대결로 압축된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7승이나 올렸고 세계랭킹 16위를 달리고 있는 최경주는 지금까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에서 한번도 같은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적이 없다.

귀국하면서 “타이틀을 방어해본 적이 없는데 아쉽다”고 털어놓은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늘 “좋은 결과를 기대해달라”는 식으로 아들려 표현했던 전과 달리 우승 욕심을 공연하게 드러낸 것은 그만큼 간절

의 후원을 받고 있는 최경주는 후원사가 주최하는 대회 우승을 다른 선수에게 내줄 수 없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 PGA 투어에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고단도 명품 페이드 샷을 갖고 있는 최경주는 체중 감량에 따른 스윙 교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드로 구질’까지 갖춘 채 출격했다.

국내과 선수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세계랭킹 6위 앤서니 김(23·나이키 골프)과 최종 라운드 맞대결에서 승리, 내셔널티틀을 지킨 한국오픈 챔피언 배상문의 각오가 예사롭지 않다. 신한동해오픈을 마친 뒤 PGA 투어 월리파인스클에 응시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배상문은 우승 상금 1억5천만원을 거머쥐면 상금왕을 굽힐 수 있어 우승컵을 공연하게 드러낸 것은 그만큼 간절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시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 회수분명가

북구 용봉지구 현대3차동  
한우갈비,포리腼,등갈비,김치전골,매운해물찌갈비  
대표 조 원 주  
(062)511-3476

### 건국내츄럴비타하우스

남구 봉선동 모이2차 버스승강장옆  
과일비타민,칼슘제,홍삼,상행바지,녹음,화미들  
선물셋트 다양보유  
(062)651-0311

### 김가네깐풍기&쫄닭

남구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정문옆  
48시간 속성시킨 웰빙식품  
(062)651-9288

### 에이스

서구 화정동 풀하우스 동물병원  
3M썬팅 외제차,국산차 전문시공 열차단  
필름 전면썬팅 열선시공전문  
(062)375-0996

### 낙지 한 마당

북구 양신동 연초제 후문에서 동이제약사  
낙지전문점 단체손님환영  
회장 이 칠 헌  
(062)576-9993

### 부화기제작판매

서구 매월동 품암동지동치공업사  
각종조류, 임고, 닭, 공작도매  
(010)9044-4263

### 국일기사님식당

북구 두암동 구민회시설집입구 국일가스옆  
백반전문, 연회석원비  
대표 박 계 심  
(062)251-2525

### (주)애드원

북구 문흥동 센터코아 맞은편  
버스, 택시, 승강장광고, 현수막, 애인간판, 차량  
렌탈, LED전광판, 국기광고, 가판대자판, 명함  
(062)261-6515

### 고조선

북구 문흥동 도동고개 3거리  
역시드라마, 지역축제, 고전의상, 암대, 폐매  
고사회, 석물, 목물, 민속품수예, 불교용품  
(062)261-6446

### 하늘먹은흑염소

북구 용봉동 미래도모아@입구  
흑염소요리전문점, 한우꽃등심, 생비육회  
대표 이상수  
(062)523-9665

### 와우&조이(문화의전당점)

동구 총장로1가 베네치아 옆  
대표 선영래  
(062)232-7111

### 베 네 치 아 (총 장 점 )

동구 광진동 구도첨과 그랜드호텔사이  
할인카드인내, 광주비자카드, 무리모이카드  
SK-멤버쉽, 현대M포인트등 각20%

### 암소한우고기장터

북구 매곡동 사론웨딩홀 뒷편  
한우꽃갈비살, 한우꽃등심, 생비육회  
암소모듬구이 비빔밥 단체손님환영  
(062)573-9392

### 대원축산